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영국계 보험사 Aviva, 배당계획 취소

□ 최근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한 영국계 최대 보험사 Aviva는 2월 4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파운드 규모의 배당(pay-out)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함.

- Aviva는 2008년 7월에 수십 년 동안 적립해 왔던 자본잉여금 처리 방침을 결정하고, 그 일환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평균적으로 1,000파운드를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음.
- 이와 같은 배당취소 상황은 Aviva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됨.
- 그러나 1년 전에 약속한 21억 파운드의 특별보너스 형태의 배당계획은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밝힘.
 - 배당계획의 취소는 자칫 보유계약의 가치 하락에 직면하는 계약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Aviva 생명보험 펀드에서 기금유출이 예상되므로 배당계획 번복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□ 금번의 배당계획 취소는 계약자 단체와의 협의 이행에 따른 조치로 파악됨.

- 2008년 7월 계약자대표와의 협상에서 영국의 종합주가지수인 FTSE100이 5,000이하로 떨어질 경우 배당계획은 재고된다는 조항을 기술하였음.
- 최근 영국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주가지수가 5,000이하인 4,164로 하락하게 되어 Aviva는 계약자배당을 취소할 권리를 갖게됨.
- Aviva는 주가하락 이외에 2008년 7월 현재 44억 파운드에 달했던 Aviva 생명보험 기금 중 2개 기금의 수익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함.
- 금번의 배당 취소에 대해서 주주와 계약자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측으로부터의 반발은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□ 배당취소 발표 이후 Aviva의 주가는 잉여금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이 호재로 작용하여 8.2% 상승한 332^{3/4} 파운드로 상승함.

- Aviva 생명보험 및 연기금의 2008년 영업실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7년 316억 파운드보다 상승한 335억 파운드에 도달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음.

(Financial Times 2/4)